김준의 갯살이

좋은 천일염, 소비자가 만든다

"토판염을 하는 사람은 전국에 다섯 명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지요." 토판은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 중 소금 결정이 이루어지는 결정지에 바닥재를 깔지 않고 자연 그대로 갯벌 상태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노동력은 장판에서 생산하는 천일염의 열배 정도 많이 들고 생산량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 고집스런 장인정신이나 자긍심이 없다면 지속할 수 없다.

지난 주말 휴가차 가족들과 함께 머물렀던 신안의 소금섬 상하태도에서 만난 소금장인 박씨의 넋두리였다. 이 섬에는 천일염전이 무려 230여 개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 염전이 가장 많은 섬이다. 박씨는 생산량 많고 일하기 좋은 장판을 걷어내고 야심차게 토판으로 바꿨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한 아들까지 불러들였다. "지가 좋아서 들어왔지, 내가 불렀나." 하지만 든든하다. 작년 소금값이 너무 좋아 토판염과 장판염 소금 값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전통소금이라며 자긍심을 갖고 힘든 것도 이겨내던 장인들이 하나 둘 장판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넋두리와 달리 박씨는 의외로 느긋하다. 어디에서 오는 여유일까. 지난해 국내 유명 백화점에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각 분야의 장인들이 전시회를 가졌다. 그곳에 박씨가 생산한 천일염도 당당히 초대됐다.

지금까지 참가비를 내고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백화점처럼 돈을 주면서 참여해 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그것만이 아니다. 주부들에게 천일염 특강도 했다. 비싼 값에 소금을 판매하는 것보다 더 큰 소중한 것을 얻은 것이다. 그것은 자긍심이었다.

지난해 박씨의 생각을 바꾼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한 소비자가 아토피가 있는 아이에게 먹이고 싶다며 최고의 소금을 원했다. 소금에 관해서 자신감이 넘치던 박씨가 정성들여 생산한 소금을 보냈다.

그런데 난리가 났다. 소금 색깔이 왜 개펄색이냐며 하얀소금을 원했다. 토판염은 원래 그렇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막무가내였다. 다시 보내달라며 반품을 해왔다. 마지 못해 염전 한판에서 토판의 갯벌에 닿지 않는 맨 위 소금만 살짝 걷어 포장해서 보냈다. 한 포대를 만들기 위해 땀을 흘렸을지 상상이 되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감사하다는 전화가 다시 왔다. 그리고 단골고객이 되었다.

토판염은 우윳빛이 나는 장판소금과 달리 약간 어둡다. 펄에서 직접 생산하기 때문이다. 펄이 묻어있는 프랑스 게랑드소금에 비하면 그것도 아주 깨끗하다. 박씨는 그 뒤로 하얀 토판염 생산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리고 직접 세척기를 만들었다. 일 년 동안 소금을 판 돈을 모두 투자해 분쇄기를 비롯한 기계를 들어왔다. 주위에서 겨우 만평도 되지 않는 작은 염전에 저렇게 투자를 하냐며 비아냥거렸다. 그래도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다.

우리나라 천일염 생산량의 80% 이상을 전라남도에서 책임지고 있다. 천일염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량이 부족하니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그렇다고 작은 소금 알갱이에 이력표시제를 붙일 수도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든다 할지라도 들어오는 도둑을 다 막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 소비자가 나서야 한다. 좋은 소금을 원하면 '착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품도 팔아야 한다. 제대로 소금을 만드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들에게 자긍심을 주어야 한다. 좋은 소금은 생산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알아줘야 진짜 소금장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귀명창 없이 명창이 있겠는가.

나는 소금 만드는 일을 천직으로 알며 염전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처음에는 그들도 많은 돈을 벌기를 원했다. 지금은 자신이 만든 소금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고 있다.

처서가 지났다. 태풍도 지나갔다. 염부들도 다시 소금밭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소비자들에게 김장소금을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기는 멋쩍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름 소금을 사다가 베란다나 뒤뜰에 갈무리해 두었다가 사용한다. 지금이 최적기이다. 늦기 전에 소금밭을 찾아가보자. 그리고 소금밭의 바닥재와 소금창고와 해주 등 염전 곳곳을 직접 확인해 보시라.

맘에 들면 후한 값을 치르고 소금 한 가마니 들여 놓자. 가까운 곳에 염전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소금이 맘에 들거든 위층 아래층에 권하고 내친김에 부녀회에서 직거래를 해보자. 소금장인과 간을 맞추자. 그게 염부의 자긍심을 살리는 길이다. 섬을 살리는 길이다.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사설

정전피해 키운 한국전력의 '복구 지연'

초강력 태풍 '볼라벤'으로 광주·전남에서 대규모 정전사고가 발생했지만 한전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전으로 양식어가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복구지연에 따른 2차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지만 보상길도 막막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전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광주·전남 전체 수용가 168만5042호 중 절반이 넘는 87만4623호에 정전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오전 9시 현재 99%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지만 복구 지연으로 7922호의 수용가는 3일째 암흑 속이다.

양식장 등에선 자가발전 등으로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전기 공급이 늦어지면서 한전 측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양식장은 자가발전시설을 갖추지 못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완도의 한 전복 양식업자는 정전으로 한전에 수차 전화를 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분노를 나타냈고, 진도의 넙치 양식업자는 산소 공급이 끊겨 넙치 종묘 70만 마리가 폐사했다며 한전의 늑장 대처를 원망했다. 문제는 이처럼 큰 피해에도 보상길이 막막하다는데 있다. 한전 측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정전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피해 어민들이 보상받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한전이 복구에 투입한 인원은 직원·타 사업소·협력사 등 1969명이 고작이라고 한다. 이 인원으로 사고지역의 방대한 현장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2차 피해를 키운 셈이다. 타사업소 등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보다 신속히 복구를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한전은 이번 기회에 대형 정전사고에 대한 메뉴얼을 마련하는 등 대비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천재지변만 따질 게 아니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개선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지자체 재해보험 지원 더 늘려야

초강력 태풍 '볼라벤'이 할퀴고 간 광주·전남지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출하를 앞둔 수산 양식장과 사과·배 등 과수단지가 초토화 되는가하면 벼 수천ha가 침수되고, 농작물이 쓰러지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초속 51.8m의 강풍이 몰아친 완도를 비롯한 여수, 해남, 진도 등지의 가두리 양식장이 유실되면서 수백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나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파악되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배와 단감, 사과 등 과수단지 역시 낙과율이 60~80%나 돼 수백억 원대의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도내 과수단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품목에 따라 60~90%에 달해 그나마 위안이 된다. 나주배의 경우 2562 재배농가 중 보험 가입률이 90%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반해 양식어가 재해보험 가입률은 극히 미미한 수준인데다 재해대책법상 복구비 지원 기준도 형식에 그쳐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보험에 가입한 도내 양식어가는 273 어가로 전체 8962 어가의 3.5%에 불과하다. 올해 어민들이 낸 보험료는 13억여 억 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와 도비 등 79%를 제외한 자부담은 2억7800만 원이라고 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통상 피해액의 70~80%가 보험금으로 지급돼 그만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도 보험 가입률이 극히 낮은 것은 어민들이 재해 시 정부의 복구 지원비에 의존하고 소멸성 보험인데다 시설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등 자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어민들의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험료의 국·도비 지원을 늘려 자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슈퍼 태풍'이 계속되는 상황에 보험의 중요성은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종교칼럼

가수 싸이 신드롬과 시대인심

주혜정

얼마 전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조회수 4500만 회를 돌파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나 또한 인터넷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약간은 코믹한 듯 한 이 뮤직비디오가 왜 한국을 넘어 세계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것일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싸이는 미국 CNN방송에 출연하여 "강남은 한국의 베벌리힐스라고 할 수 있다"며, "베벌리힐스에 사는 사람처럼 생기지 않은 사람이 베버리힐스에 어울리지 않는 춤을 추지만 베버리힐스 스타일이라고 우기는 것이 포인트"라고 인기 요인을 분석했다.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며 만약 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도 약간은 삼류 코믹 뮤직 비디오 같은 싸이 스타일이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다. 요즘처럼 유럽 경제 위기로 세계 사람들도 움츠려있고 한국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조금은 우울한 시기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싸이의 뮤직 비디오를 보며 잠시라도 시름을 잊고 한 번쯤 웃을 수 있는 뮤직비디오의 출현이 가수 싸이를 일약 스타덤에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요즘 사회문제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회참여의 폭이 좁아져, 취직이나 취학 등 집 바깥의 생활 환경이 장기간에 걸쳐 없어지는 상태'를 나타낸 신조어로 요즘은 취업난과 경제난으로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외톨이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를 향해 현재 어렵게 삶을 꾸려가고 있는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며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이 뉴스에 자주 보도된다.

정치인들은 대선을 겨냥해 지금 온갖 제스처로 자신들을 어필하기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역대로 항상 선거가 끝나면 민생문제는 어디로 가고 자신들의 정당과 개인의 이권을 위해 다투는 모습을 보며 실망을 거듭해 왔다. 대선에서 승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온갖 노력을 하기보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진단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빠른 길 일 것이다. 이른바 시대인심을 바로 읽을 줄 아는 정치인이 성공한다는 뜻이다. 비단 정치뿐 아니라 패션이든 문화든 트렌드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마케팅이 성공하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원불교 교조 소태산 대종사는 "무릇, 천하 만사가 다 본말(本末)과 주종(主從)이 있나니,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끝을 따라 끝에만 힘쓰면 근본은 자연 매하여질 것이요, 또한 주(主)를 알아서 주에 힘쓰면 종(從)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종을 따라 종에만 힘쓰면 주가 자연 매하여질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대선에서 승리가 주(主)인가 국민의 마음을 읽는 것이 주(主)인가 생각해 보면 승패도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처럼 본말과 주종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정치인을 뽑는 혜안은 또한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신창교당 교무〉

기고

지역 특산품 세계화 첫걸음 지리적 표시등록

장맹수

지난 21일 '거문도 쑥'의 지리적 표시 등록증 전수식이 여수시청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 김충석 여수시장, 남주현 거문도 해풍쑥 영농조합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필자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대신해 남주현 대표에게 지리적 표시 등록증을 전달하였다.

거문도는 여수에서 동남쪽으로 115㎞ 떨어진 곳에 있어 지리적으로 청정지대에 속하며, 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온화한 기후대에 속해 있다. 이렇게 기후와 지리적 특성상 유리한 여건 속에서 자란 '거문도 쑥'은 고유의 향이 강하며,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조합은 쑥 가공 자동화 시설·저온저장고 설치 등 관리시설을 현대화하고, 조합원(189 농가) 모두가 자체품질 관리기준을 철저히 지켜서 쑥을 생산하고 있어 3차에 걸친 엄격한 등록 심사를 모두 통과해 지난 7월 30일 제85호로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됐다.

도내에서는 2001년 '보성녹차'가 국내 지리적 표시 제1호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진도 홍주' 등 농식품 22개, '장흥표고버섯' 등 임산물 6개, '보성 벌교꼬막'등 수산물 9개를 포함해 총 37개 품목이 지리적 표시로 등록돼 있다. 특히 올해에는 고흥 한우·나주 배·진도 검정 쌀·거문도 쑥이 등록됐다.

지리적 표시제는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이후 이탈리아·스페인 등 주로 전통적인 포도주 생산 국가들이 유럽연합(EU)에서 제도 도입을 주도했다.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지리적 표시제는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한국과 칠레·미국·EU와의 FTA 협정에는 지리적 표시 보호가 별도로 규정돼 있다. 특히 EU와의 FTA 협정에서 한국은 64개, EU는 162개의 지리적 표시 상품을 서로 보호해 주기로 구체적 약정까지 맺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특정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지역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품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제를 1999년 처음 도입했다.

지리적 표시제도와 같이 정부가 인정한 각종 등록 및 인증제도 등은 식생활에서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유익한 제도임과 동시에 생산자인 농업인은 물론 우리나라 농업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지리적 표시를 한 품목의 생산자들은 자기 지역의 자원가치 향상과 역사성 및 사회적 명성도 높일 수 있는 지역의 공공재산 축적에 한몫을 한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

나아가 지역의 특산 농식품이 한식 세계화 전략과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면 농식품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다문화가정 아이들 따돌림 받지 않게 멘토제 도입하자

요즘 TV에서는 소위 '멘토'라는 말이 유행이다. 나가수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선배 가수가 멘토가 되어 신인 가수들을 지도하며 이끌어 간다. 이렇게 멘토라는 단어가 유행일 정도로 누군가에게 조력을 해 주거나 조력자가 되는 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가 아닌가 싶다.

이 멘토라는 방식을 다른 곳이 아닌 다문화 가정에 도입해서 도시든 농촌이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왕따를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적극 도와주고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일전에 방글라데시 출신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초등학생이 같은 반 급우들의 따돌림과 매타작에 시달리다 견디지 못해 부모에게 죽고 싶다며 호소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보도도 있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극히 일부의 내용일 뿐이지 실제 이런 비슷한 피해를 당한 학생과 가정이 한둘이 아닐 걸로 본다.

더 놀랍고 화가 나는 일은 이런 폭력행위가 벌어지고 나서 이 아이의 학부모가 학교에 상담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에게 주의 한마디 하곤 그걸로 끝내버리고 마는 일이다.

현재 한국인과 외국인이 짝을 이룬 가정이 18만 가정이나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국 농촌과 도시에서 보이게 안보이게 가해지는 수많은 왕따와 폭력을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우리말 발음이 서툴러 따돌림을 받고, 피부색 때문에 놀림 받고, 가난하다고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아이들은 친구 한 명 없이 지낸다고 한다. 거기다가 이런 아이를 도와주는 친구도 교사도 없다면 이 아이들은 누구에게 기대겠는가.

왕따와 학교폭력에 희생되는 아이들은 신체,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이고, 말이 어눌하거나 행동이 굼뜬 아이들이다. 즉 또래보다 뒤처진 아이들이다. 그렇다 보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표적이 되기 쉬운 것이다.

그러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친구들 사이에 잘 섞여 지낼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학우들과 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후견인(멘토)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학교 안팎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있으면 그 자체가 바람막이가 되어 지금 같은 왕따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걸로 본다.

▲권희숙·광주시 남구 압촌동

無等鼓

퇴출된 태풍

우리나라를 통과한 역대 태풍 중 인명을 가장 많이 앗아간 것은 1936년 8월에 발생한 태풍 '2693호'였다. 당시 태풍으로 1232명이 죽거나 실종됐다.

요즘 관점에서 보면 태풍 이름이 숫자로만 돼 있는 점이 낯설지만 발생 시점과 피해 규모에 따라 번호를 매기던 당시로선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태풍에 처음으로 이름이 붙여진 것은 1953년 호주 기상 예보관들이 싫어하는 정치인의 이름을 붙이면서부터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 공군과 해군에서 아내나 애인 이름을 붙여 사용했으나 여권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1978년부터는 남성 이름도 사용했다. 요즘처럼 태풍 이름에 우리나라 말이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아시아태풍위원회에서 태풍 작명법을 바꿨기 때문이다. 남·북한을 포함해 태평양 연안 14개국에서 10개씩의 이름을 제출받아 총 140개를 28개씩 5개조로 나눠 연초부터 발생 순서대로 이름을 붙이고 있다.

남한 이름에는 개미·나리·장미·노루·독수리 등이 있고 북한 이름으로는 기러기·도라지·갈매기·무지개·메아리 등이 있다. 남·북한을 합하면 20개의 태풍이 우리말 이름을 가지고 있다.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은 퇴출돼 새로운 이름으로 대체된다. 지금까지 24개의 태풍이 퇴출됐는데 우리나라에 커다란 상처를 남긴 루사(2002년)와 매미(2003년)도 퇴출돼 각각 누리와 무지개로 이름이 바뀌었다. 퇴출된 한국명 태풍은 매미를 포함해 봉선화·수달·나비 등 4개다.

루사는 두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다. 5조1470억 원이란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입혀 이 부문 1위에 올랐고 2002년 8월 31일 하루 동안 강릉에 871㎜에 달하는 집중호우를 쏟아 가장 많은 비를 뿌린 태풍으로 기록됐다. 매미의 풍속은 초속 60m를 기록해 가장 강한 바람을 몰고 온 태풍이 됐다.

태풍 볼라벤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무등산에서 초속 59.5m를 기록해 강풍측면에서 역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강풍 피해가 컸는데 루사와 매미처럼 퇴출될지 관심이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FAX	222-8005〉
정경부	2200-612	〈FAX	222-0195〉
〈대표 FAX	222-4918〉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회부	2200-616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FAX	227-9500〉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7-9500〉
여론매체부	2200-621	디자인	2200-536
체육팀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사진부	2200-693	기획사업국	2200-555
조사부	2200-571	〈FAX	02-773-9335〉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